건축 의장적 측면에서 본 BTL 사업에 대한 소고

A Review on the Architectural Design in BTL Projects

전 유 창*
Jeon, You-Chang

1. 서론

2005년 1월에 개정된 민간 투자법에 의해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에 임대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간투자방식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 적용되었다. 이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설계, 공사감독, 유지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민간에게 위임하여 공공부분(교육청)은 사업기획, 모니터링 등 최소한의 역할을 맡아 효율을 증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대부분 초중등학교의 신설이나 개축 증축 부대시설 등에는 BTL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시설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목표로 출발한 BTL 사업은 지난 몇 년 동안 학교시설의 현대화, 열린 교육, IT 기술 활용, 교수 및 학습방법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등 변화하는 교육여건을 적절히 반영해왔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불편하고 낙후된 학교시설의 개선요구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재정 부담의 완화와 조기편익 제공 그리고 택지개발지역의 신설학교 소요에 대한 적기 대응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 본연의 장점과 또 그에 가려진 단점이 있듯이 현행 BLT 사업은 제도가 가지는 합목적성을 중심으로 지나친 경쟁과 효율성의 치중으로 말미암아 건축 본연이 가지는 설계의 자율성과 건축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건축의 의장적 측면 즉 외부적으로는 건축 형태와 표면 즉 재료의 선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성 및 장소성에 대한 표출 문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의 정서적 교육환경 향상을 중심으로 BLT 사업의 추후 고려해야 할 여건에 대해 논하려 한다.

* 정회원, 아주대 건축학부 조교수

2. 본론

먼저 건축의 외부의 의장적 측면을 보면 BLT 사업을 통해 학교시설은 일부 건축구조와 재료의 현대화를 이루었지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건축적 이미지와 장소성을 구현하는 학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낮은 건축단가, 학교건축을 위한 건축가 선정방법, 교육계의 보수적인 시각, 설계과정이 치열하지 못하고 정형화되어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창의적인 설계를 유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BTL 제도가 효율성을 중심으로 건축의 생산과 관리의 사업성에 중점을 둔 결과 건축 설계가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을 통해 적절하게 지역성과 장소성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성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건축은 시간상으로는 역사와 전통의 위에 놓여 있고, 공간적으로는 도시 공간체계의 관계 속에 존재하게 된다. 이는 건축이 개별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주변의 즉 자연적·인공적 요소와 함께 사회, 문화, 역사적 의미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및 장소적 특성을 반영하는 건축은 지역 기후, 재료, 정서 및 스타일을 반영하며 이러한 건물은 그것이 의도된 목적과 함께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와 역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격을 담는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지자체별로는 학교 내외부의 디자인을 친 문화적으로 바꾸고 학교공간을 주변복지와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변신시키고 있다. 이는 학교의 폐쇄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개방적 공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교활동뿐 아니라 지

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의 장소로 개방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최근 학교의 역할이 교육의 기능적인 의미를 넘어 지역사회의 중심적 장소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의 BTL 사업으로 계획된 학교의 건축 형상과 외관 이미지는 획일화된 의장적 요소의 반복된 사용과 성능위주의 재료 선별, 그리고 비용의 제한으로 말미암은 설계상의 제약들 때문에 다분히 획일적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축의 의장적 측면도 지역의 문화와 경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디자인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현재 BTL 사업이 가지는 의장적 문제는 건축물이 가지는 고유성의 부재와 경직된 계획방식 또는 끼워 맞추기 식의 설계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사무실의 과다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특정 사무실 내부에서는 비슷한 대안을 장소만 바꾸며 배치하여 이전 설계안을 사용하는 사례까지도 볼 수 있다. 이는 건축이 외부형태와 재료를 통해 지역적 고유성과 지역사회의 공공시설로 탈바꿈하는 현상과 역행하는 폐해로 볼 수 있다. 건물의 기능과 성능을 보여주는 현대적 이미지의 재료 선별보다는 학교라는 교육적 장소로서의 이미지와 지역사회의 아이덴터티를 이를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반영한 의장적 요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효율적인 설계와 장기적인 관점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건축의 외장을 기능적인 역할 즉 성능의 측면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나 재료의 다양성을 통해 지역이 가지는 특성과 장소가 가지는 맥락을 드러내는 다양한 시도들이 아쉽다 할 수 있다.

건축 내부의 의장적 문제로 실내의 디자인과 재료의 선택적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색감과 색채 그리고 재료에 대한 제안이 분명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학교가 단지 기능적인 학업을 수행하는 목적지향의 환경에서 다양한 학생들의 삶을 만들 수 있는 정서적 환경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BTL 사업은 기능주의와 경제논리가 강조되면서 대량생산과 이에 상응하는 구축방식을 바탕으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건물의 표현을 중요한 논리로 만들었다. 반면에 이것은 건축 물성과 학생들의 지각에 따른 건강한 정서의 함양을 외면하는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다.

정서는 인간 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한 정서는 더욱 진취적이고 긍정적 인간을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특히 인간 발달 시기 중 성격형성의 시기라 할 수 있는 유년기에서 어떤 환경에서 생활 또는 학습하는가에 따라 인성의 발달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건강한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주위 환경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자 정서적 함양의 효과를 얻는 곳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환경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개인의 성격 가치관 등의 정서적 영향과 학습 효과적 측면에서 학교 내 환경은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실내에서의 건축 재료는 학습능력을 도모하고 시각적 또는 감성적으로 인간의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인자이다. 이에 따른 심리적, 정서적, 미적,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료 및 색채 계획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재료의 물성적 특질과 색채가 실내공간에 적절히 구현될 때 재료 자체의 물리적 특성, 인간척도의 스케일, 재료의 시간성 그리고 색채의 특성을 통해 학생의 감각 및 정서에 긍정적 자극을 줄 수 있는데 반해서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획일화된 재료의 이용은 재료 자체의 물성과 지각적 차원의 관련성을 약화시킴으로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가 단지 기능적인 학업을 수행하는 목적지향의 건조 환경에서 다양한 학생들의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정서적 환경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학생들의 감각을 자극하며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일상적 교육의 영역에서의 풍요로운 건축경험을 강조한 학교 건축 환경이 필요한 때다.

3. 결론

학교 시설이 지역사회의 공공시설로의 의미가 있으려면 각지역적 특징과 장소가 가지는 특수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외부의 의장 계획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교육환경의 기본적인 취지가 성장하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 고취와 정서 발달을 주요한 목표로 삼는다고 할 때 경제적 논리에 치중하여 진행되고 있는 현행 BTL 사업에 좀 더 세심한 보안책과 사업자 선정 방식 그리고 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이는 BTL 사업이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하면서 개개의 설계사가 각 지역적 특징에 맞는 창의적 설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본설계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사업 제안자의 경비, 시간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해 현장에서 설계를 단순화시키거나 마감 재료의 교체 등의 빈번한 사례들에 대한 제도적 보

완도 필요하다. 또한, 좀 더 창의적이고 적절한 설계의 반영을 위해 건축사와 건설회사 선정방법을 경쟁 입찰이라는 일률적인 방법을 다변화하여 보다 유능하고 경험 있는 민간의 참여에 대한 유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 BTL 사업이 경제적 사회적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 내외부의 의장적 측면에 대한 미약한 고려는 결국 건축이 가지는 문화적 실체로서의 공공성과 학생이 필요한 정서적 환경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부분 모두 우리가 반세기 전 근대건축의 실패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교훈임을 고려해볼 때 BLT 사업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1. 유웅상, 학교시설의 발전을 견인하는 BTL 사업,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3권 제3호, 2006
2. 윤소영, 학교의 새로운 변화 ; 새로운 용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그다,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5권 제2호, 2008
3. 이교원 BTL 사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2호 2008. 4
4. 장덕찬, '교육시설 BTL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설계과정 및 품질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